“구형 가전도 AI로 똑똑해진다” ‘씽큐 온’ 맞춤형 스마트홈 구현

IFA 2024

LG 류재철 사장, 독일서 간담회
B2B·구독 서비스 등 확장 계획
집사로봇 ‘이동형 AI홈 허브’ 선봬
“씽큐 온 중심 AI홈 연내 경험할 것”

류재철 LG전자 H&A사업본부장이 5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된 유럽 최대 가전 박람회 ‘IFA 2024’ LG전자 부스에서 AI홈 허브인 ‘LG 씽큐 온’을 소개하고 있다. /LG전자

“구형 가전도 인공지능(AI) 가전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류재철 LG전자 H&A 사업본부장 사장이 지난 5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IFA 2024 기자간담회’에서 LG전자가 추구하는 AI 홈 솔루션의 비전을 이같이 밝혔다. AI 홈 솔루션 서비스의 탑재 범위를 구형 가전을 가진 가정으로도 확장하겠다는 계획이다.

류 사장은 “AI 기능이 없는 구형 가전에서도 LG 씽큐 온을 사용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할 것”이라며 “다만 연결은 되어야 하는 만큼 기존 와이파이가 탑재된 가전이나 리모컨으로 동작하는 가전까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LG전자는 이날 업계 최초로 생성형 AI를 적용한 AI홈의 핵심 허브 ‘LG 씽큐 온’을 중심으로 구현한 AI홈의 모습을 선보였다.

씽큐 온은 집안 가전과 사물인터넷(IoT) 기기를 연결해 주는 AI홈의 두뇌 역할을 한다. 고객이 일상적인 언어로 말하고 AI가 대화 맥락을 이해해 상호작용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예를 들어 매일 저녁 8시 쯤 운동을 하는 고객이라면, 운동 일정이 끝날 때 세탁기 코스를 ‘기능성 의류’로 바꿔 준다.

류 사장은 “경쟁사가 가전 제품의 연결을 강조해왔다면, LG전자는 연결 후에 고객 관점에서 어떤 가치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지에 집중했다. ‘더워’라는 말을 듣고 AI가 단순히 에어컨을 트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맞는 온도를 맞추는 것과 같은 부분까지 구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LG전자는 씽큐 온을 구독·B2B 등 사업으로 확장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한 정기현 플랫폼사업센터장은 “씽큐 온 역시 구독 사업 중 하나로서 추진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며 “신축 아파트 등의 기업간 거래(B2B)도 중요한 사업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LG전자는 IFA 2024에서 선보인 AI 집사로봇 ‘이동형 AI홈 허브(코드명 Q9)’이 여러 기능들이 추가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향은 LG전자 H&A CX담당 상무는 “오는 10월 덴마크에서 열릴 개발자 콘퍼런스 ‘로스콘’을 통해 전세계 개발자들과 이동형 AI홈 허브의 새로운 기능을 함께 연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픈 플랫폼인 만큼 생태계를 구성해 또 다른 기능 탑재가 빠르게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LG전자는 지난 7월 인수한 스마트홈 플랫폼 기업 ‘앳홈’의 개방형 생태계와 연결성을 바탕으로 업그레이된 연결 경험을 고객에게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AI홈의 최대 약점으로 꼽히는 보안 문제에 대해서도 LG전자는 보안성을 강화한 ‘LG 쉴드’를 적용해 AI홈 보호에 나선다.

류 사장은 “AI가 가전을 제어하고, 고객 맞춤형 생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AI홈 시대를 열겠다”며 “생성형 AI를 적용한 AI홈의 핵심 허브 ‘LG 씽큐 온’을 중심으로 AI홈을 연내에 경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생활가전 업계 화두로 떠오른 로봇청소기에 대해 류 사장은 “그간 일체형 로봇청소기의 단점으로 꼽히는 악취와 위생 관리를 보안할 수 있는 기술 개발에 공을 들여왔다”면서 “현재 판매 상황이 양호하다”고 설명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온·오프로드 아우르며 안정성·성능 잡다”

첫 전기 SUV ‘어벤저’ 공식 출시
1회 충전으로 400km 주행 가능
커넥티드 서비스에 CATL 장착

“지프의 브랜드 전략은 윌리스부터 시작된 오리지널 프리덤 머신에서 가졌던 가치를 보호하면서 전체적인 고객층 범위를 확대해 가는 것.”

한국에 공식 출시한 어벤저로 브랜드 고유의 가치를 유지하면서 전기차라는 새로운 영역에 도전해 더 많은 고객층에 ‘전동화 파워트레인’을 알리겠다는 의미다.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의 원조 지프는 지난 4일 ‘Jeep Avenger Design & Tech Day’를 열고, 한국 기자들에게 어벤저 기획자들의 개발 과정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어벤저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오프로드 뿐만 아니라 온로드에서도 충분한 성능을 낼 수 있도록 기획됐다.

컴팩트한 차체는 회전 반경이 10.5m로 좁은 공간에서도 여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설계됐다. 주행거리는 1회 충전으로 400km를 이동할 수 있다. 도심에서는 550km까지 주행할 수 있고, 100kW 고속 충전기를 사용할 경우 20%에서 80% 충전까지 24분이면 충분하다.

9월4일 공식 출시한 어벤저 트렁크 공간 활용 모습. /지프

어벤저에는 CATL사의 배터리가 들어간다. 지프는 배터리 안정성 테스트를 위해 400만km를 달리며 영하 30도에서 영상 40도까지 잘 견딜 수 있는지 실험했고, 1열과 2열 뒷부분 아래에 위치한 배터리를 보호하기 위해 쉴드를 장착했다.

현재 커넥티드 서비스를 통해 차주가 스마트폰으로 배터리 상태를 확인하거나 히터를 미리 켜둘 수 있지만, 주기적으로 배터리 상태를 모니터링해 알림을 주는 BMS 기능은 아직 구현되지 않았다.

지프 어벤저는 편의 및 안전 사양에 따라 론지튜드 트림 5290만원, 알티튜드 트림 5640만원에 판매 중이다.

지프 다니엘레 칼로나치 디자인 헤드는 “디자인할 때 쿨하되 기술적이어야 하고, 패서너블하되 컴팩트해야 하며, 동시에 젊음과 재미 요소를 갖추도록 디자인해야 했다”고 말했다.

어벤저는 1회 충전으로 400km를 주행할 수 있어야 하는 만큼 공기역학을 개선하기 위한 외형 디자인에도 공들였다. S라인 곡선 디자인, 휠 하우스 U자 설계 및 기어비를 개선함으로써 약 8%의 추가 주행거리를 확보했다.

/박대성 기자 iunmds@

포스코인터 “가상 오피스서 인턴 체험”

‘버추얼 메타버스 익스턴십’ 실시

포스코인터내셔널 익스턴십 참가자들에게 사내멘토들이 메타버스 미팅을 통해 커리어과제 피드백을 하고 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이 메타버스 익스턴십으로 미래 인재 육성에 나선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국내 종합사업회사(상사) 최초로 메타버스 가상 오피스를 활용한 인턴십인 ‘버추얼 메타버스 익스턴십’을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 8월 19일부터 2주간 진행된 이번 익스턴십 프로그램은 회사 내에서 4주 이상 직무 체험을 하는 기존 인턴십과 다르게, 회사가 아닌 메타버스 상에서 근무하며 직무 경험을 쌓는 게 특징이다.

이번 익스턴십은 풀타임 근무가 어려운 구직자나 방학 중 수도권에 거주하지 않는 취업준비생들에게 호응을 얻어 기존 인턴십보다 2배 많은 지원자가 몰렸다고 포스코인터내셔널 측은 설명했다.

익스턴십 프로그램은 참가자들이 영업 및 사업개발 직무 프로세스를 집중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사업실별로 선정된 9명의 우수 사내 멘토를 매칭해 커리어 과제를 부여하고 주 2~3회 메타버스 미팅을 통해 피드백을 제공했다. 익스턴십 우수 수료자는 신입 공채 지원시 서류 전형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포스코인터내셔널 관계자는 “처음 시도한 버츄얼1 메타버스 익스턴십이 사회 첫 발을 내딛기 전의 미래의 인재들에게 직무 경험은 물론 당사 조직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로 다가가길 바라며, 이번에 만난 우수 인재들이 회사와 또 연이 닿아 사내 구성원으로 만났으면 한다”고 밝혔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향후에도 유연하고 혁신적인 방식으로 구직자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다양한 소통 채널을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

/양성운 기자 ysw@

SKT, 청소년 마약·딥페이크 막는다

RCS 메시지로 범죄 예방

SK텔레콤과 경찰청은 RCS 메시징 기반 공익 메시지 전달 캠페인을 통해 청소년 마약 범죄 근절 및 딥페이크 범죄 예방 등 안전한 사회 만들기에 함께 나선다고 8일 밝혔다.

RCS는 국제 표준 메시지 규격 중 하나이자 기존 문자(SMS·MMS) 서비스에서 발전한 차세대 메시지로, 보다 많은 글자 수 또는 이미지를 전송할 수 있다.

SKT와 경찰청은 이달부터 최근 사회적 이슈로 대두된 청소년 마약 범죄 및 청소년 대상 딥페이크 제작 범죄 예방·근절을 위해 RCS 메시징 서비스를 활용한 공동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먼저 지난 3일부터 발송 중인 ‘청소년 마약범죄 예방방안 및 대처법’ 메시지에는 청소년들에게 마약 범죄의 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학부모에게는 자녀의 마약 예방을 위한 주요 관찰사항 및 대처방법 등 실생활에서 참고할 수 있는 예방안을 상세히 담았다.

SK텔레콤과 경찰청은 RCS 메시징 기반 공익 메시지 전달 캠페인을 통해 청소년 마약 범죄 근절 및 허위영상물(딥페이크) 범죄 예방 등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한다고 8일 밝혔다. /SKT

/구남영 기자

카카오모빌, 로봇 기반 서비스 공동개발

호반건설·베어로보틱스와 MOU

카카오모빌리티는 호반건설, 베어로보틱스와 손잡고 ‘실내로봇 서비스 운영환경 표준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3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로봇 배송 서비스 운영 환경을 표준화하고, 각 공간의 특성에 맞춰 최적화된 서비스를 개발하고 표준화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사무실·호텔·아파트·상가 등 다양한 공간마다 로봇 배송 운영 규격을 개발해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로봇 배송 서비스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호반건설이 보유한 다양한 공간에서 로봇 배송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고, 서비스 적용 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베어로보틱스는 로봇 하드웨어와 주행 설루션 기술을 고도화하고 효율적인 서비스 운영 설루션을 개발할 계획이다.

/이혜민 기자 hyem@